



9면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 최선

전주매일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음 3월 8일) 제34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개발청·K-UAM드림팀 업무협약



15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형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K-UAM 드림팀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사진 오른쪽)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UAM '전북 미래 먹거리'로 띄운다

〈도심항공교통〉

전북자치도, 새만금청·K-UAM드림팀 등과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상용화 추진 협약 김지사 "전북 안성맞춤 산업... 성장동력 육성"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UAM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를 통한 UAM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띄우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 K-UAM드림팀 등과 전북형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K-UAM드림팀 컨소시엄 대표(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정호 한화시스템 사업대표, 하민용 SK텔레콤 CIO, 박서하 티맵모빌리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K-UAM드림팀은 정부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로, 한국공항공사는 UAM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구축과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을,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 개발·운영·제조·유지보수(MRO) 및 교통관리 솔루션에

대한 실증을 맡는다.

SK텔레콤은 기체 도입, 운항 서비스, AI 도입을 통한 이동수요 분석 및 운항 관리 서비스 고도화 등 종합적인 UAM 서비스운영을, 티맵모빌리티는 UAM과 지상교통을 연계한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플랫폼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K-UAM드림팀과 공동으로 △UAM 시범운용지역 및 사업자 선정 공동 추진 △전북형 UAM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 △도민 및 도내 기업과 상생방안 마련 △인재양성 및 UAM 생태계 조성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동 협약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시 UAM 상용화를 대비해 UAM 운용 개념을 도시설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인허가 등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및 국비 확보 등 새만금 사업지역내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UAM드림팀은 국토부가 민관협동

대규모 실증사업에 참여해 기술력 등을 인증받은 기업들로 UAM 시범사업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및 인프라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UAM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번 4월부터 추진 중인 UAM 실증·서비스 기반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내 산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까지 '도심항공교통 산업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UAM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육성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교통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이다"며 "이차전지, 방산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해 친환경 미래형 모빌리티 생태계를 고도화하려는 우리 전북에 안성맞춤으로 꼭 필요한 산업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협약이 전북 UAM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협약기업들과 전북형 UAM 시범사업 공동대응을 통해 UAM 산업을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울 농촌공간정비 공모군산시·고창군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 주관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군산시, 고창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도까지 전국 6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는 전국 16개 시군이 경합해 최종 10개소가 신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군산, 고창은 유해성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공동이용시설 및 마을공원을 조성하거나,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등 농촌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선정된 사업지구에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85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는 50%, 도비는 15% 비율로 지원된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농촌활력과정은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정주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 공모 '도전장'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핵심 소재 한계 극복 위해 산업부, 내달 선정평가위 심의 거쳐 최종 선정

전북자치도가 이차전지의 고도분석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을 고도화하기 위해 실시간 고도분석 기술 인프라와 전용공간을 구축하고, 프로세스·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기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는 기존 핵심 소재 시험·분석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특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

공한다.

또한 개발된 소재를 적용한 셀 제작 및 성능테스트를 원스탑으로 지원한다.

도는 실시간 투과전자현미경 등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 20종을 구축해 전문교육을 통한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서는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 후, 5월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 선정 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오랫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육성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반드시 공모에 선정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차전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혜택을 미래 산업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개인정보보호위 주관... 전북자치도,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주관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공공·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결합, 분석하는 등 전 과정을 지원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개보위는 현재까지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을 추가 구축지로 선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자체예산 6억원을 투입해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필요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게 가명정보 처리·결합·활용을 위한 시설, 컨설팅, 교육 등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6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웰케어(식품, 의료, 복지) 데이터(data)와 공간정보를 통해 가명정보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2024년도 여행은, 풍요롭고 친린한 고창에서

저희회고창 청보리밭 축제

2024. 4. 20.(토) ~ 5.12.(일)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원